

# 80년대 한국 통계의 현황과 장래 - 통계이론을 중심으로 -

## 토 론

김 성 주\* 김 우 철\*\* 안 윤 기\*\*\*

지난 80년대에 한국통계학회에서는 정기학술발표회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국제학술회의와 외국학자 초청 세미나 및 연구회와 지회에서 학술행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통계이론도 국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한 걸음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정수 교수의 주제 발표와 10년전 백운봉 선생님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70년대에 비하여 통계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수가 증가하였고 연구분야도 다양해진 것은 이러한 발전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논문이 국제적 학술지에 게재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계학연구(연 평균 12편)와 응용통계연구(연 평균 14편)에 게재된 논문수는 400명에 이르는 학회회원수와 60여개 대학에 설립된 통계 관련 학과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이는 논문의 인용빈도라든가 질적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통계이론 수준이 국제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계이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통계학연구와 응용통계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의 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학술회의와 지회 및 연구회에서 학술행동 결과가 통계학연구와 응용통계연구에 학술논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의 능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방안으로서, 통계학회가 주관이 되어 세분화된 주제에 관한 tutorial형식의 workshop을 자주

---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마련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통계이론의 발전을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 넓은 통계의 응용을 바탕으로 통계이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학원 교육에서 통계상당 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로부터 통계이론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의 통계이론 교육은 엄밀한 이론 전개를 바탕으로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등수학이 요구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통계이론만을 위한 학사과정의 통계학 교육이 따로이 있을 수 없지만,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선별적으로 수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